

대행 스님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주인공에 맡기라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이렇게 앉아 봤습니다. 어저께서부터 이 고깃덩어리가 같이 한자리를 하면 한자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있다면 가장 가깝고 마음에 없다면 가장 먼 것입니다. 가깝게 있어도 먼 것이죠. 이런 도리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불법이라 하면 이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데에, 바로 그 살아나가는 생활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활하면서 좀 더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지혜가 늘어 가고 알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또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여러분과 같이 이 우주와 더불어 그냥 쉴 사이 없이 물 흐르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런 것이 이렇고 저런 것이 저렇다고 마음을 묶어 놓고 꼼짝 못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분은 없습니까? 이 뉴욕이라는 데는 더군다나 더 정신 계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죠. "부처님 법을 어찌 계발이라고 하느냐?" 이러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계발이라고 하는 게 제일 쉽게 느껴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스님 법문 들었을 때 넘어진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일어나는 힘도 그 안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에 어떤 병이 일어나면, 기업 하시는 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고 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큰스님 그것을 대답하기 이전에, 어저께 말하던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바닷물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다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담아도 손색이 없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큰 바닷물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담기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차원에 따라서 그 말도 여러분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쓸 때에, 이런 물 뜰 때는 컵을 쓰고 또 (음료수 병을 들어 보이시며) 이런 걸 담을 때는 요런 병을 쓰듯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이죠. 그것이 살림살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네 가지의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몸속에 또 지수화풍이 들어 있으면서 별처럼 그 의식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있죠. 그것을 모두가 한데 합쳐서 지수화풍이라고 부르죠? 지수화풍의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연관 때문에 광력과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을 충만하게 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게끔 근거지를 만든 거죠.

우리가 지금 내부로나 외부로나 다 쓸 수 있고,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전부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자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지수화풍으로부터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들이고 내면서 마음대로 기를 조절할 수 있고, 기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떠한 약체에 에너지도 반분해서 넣을 수 있고, 즉 말하자면 A형에 A형을 빼다가 보조를 해 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만생 그 모두가 약이 아니 되는 게 없어요. 모두가 약이죠.

그렇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레바퀴라고도 하지만 불바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요걸 차근차근히 알아듣기 쉽게 지금 얘길 하는 겁니다. 내가 쉽게 말한다고 쉽게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생활에 지침이 될 테니까요.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상하는 겁니다. 그건 시쳇말로 컴퓨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도 모두 주어져 있다. 컴퓨터에 다섯 가지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동적으로. 그건 뭐냐? 컴퓨터는, 즉 말하자면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살던 것이 입력이 된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데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자꾸자꾸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저지른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알고 저지르는 건 알고 나오게 돼 있고, 모르고 저지른 건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 또 거기 대두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업을, 즉 인과의 업을, 악업 선업을 다 지니고 나온 것은 바로 인과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뚱이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자체가. 내 마음 한마음은 바로 지배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된 데서 나오는 거를,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일어나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니까, 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다 '팔자 운명도 없고 병 붙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시 입력을 할 때 먼저 입력이 됐던 팔자 운명은, 즉 인과로써 입력됐던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놓는 동시에, 그것이 놓으면 놓는 대로 모든 게 앞서 것이, 과거의 것이, 내가 나오기 이전에 살던 것이 다 무너질 때에, 현실에 자꾸 넣으면 없어지고 자꾸 넣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그릇이 빈다 이겁니다. 그릇이 비게 되면 나를 밝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밝게 볼 수가 있는 동시에 뭐가 거기서 나타나느냐. 바로 천안통, 보는 거. 천이통, 듣는 거. 타심통, 바로 남의 속을 아는 거. 신족통, 바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이거를 팩스나 탐지기나 망원경이나 무전통신기나 이런 걸로 용어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거기 시스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업을, 인과를 다 무너뜨려야만이, 그 습을 다 놔야만이 이게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밝게 보이면 뭐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이 심안의 눈으로써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천안통, 천체망원경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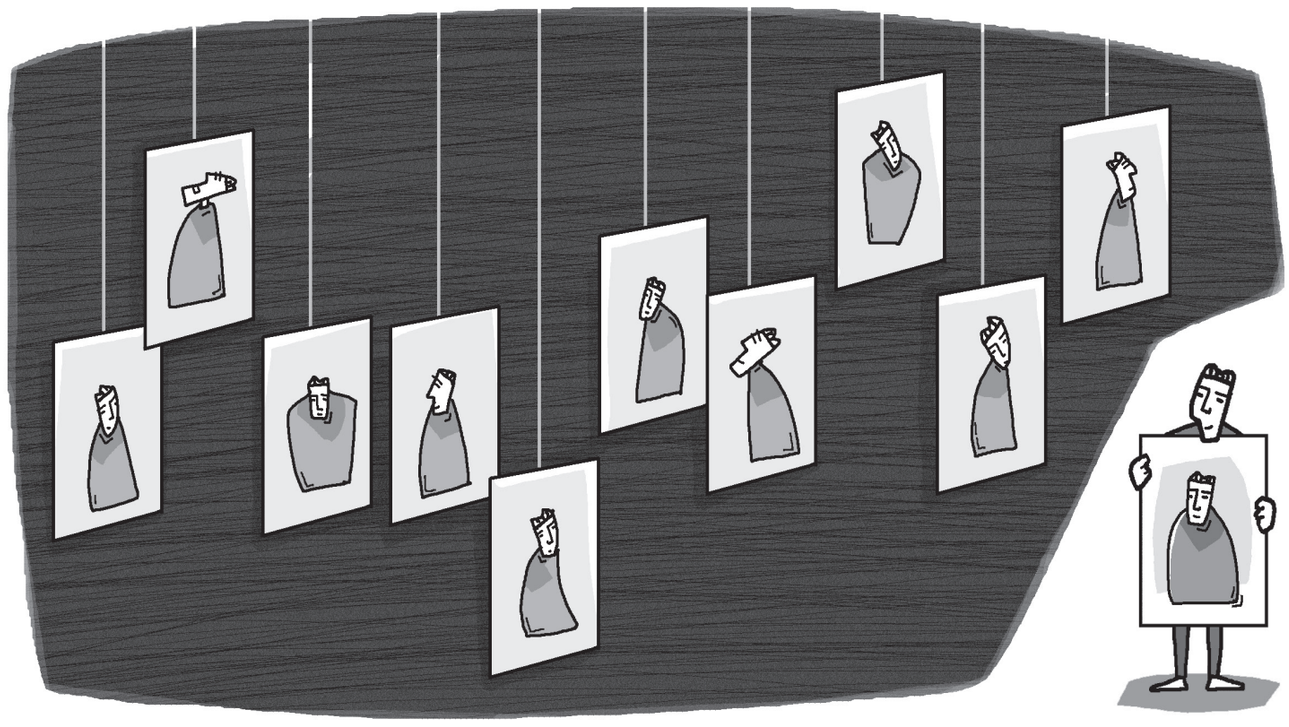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